BIEF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Design: www.athom.fr 옮긴이 이은정 : Julia Eun Jeong Lee - ejlee.julia@gmail.com

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
115, bd Saint-Germain - 75006 Paris, France
t. +33 (0)1 44 41 13 13 - f. +33 (0)1 46 34 63 83
info@bief.org - www.bief.org

CNRS é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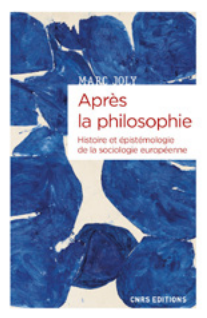
- 철학 이후
- 카르타고
- 가톨릭과 반유대주의
- 싸우고, 구하고, 치유하기
- 동물 형이상학 에세이
- 역사를 보편화해야합니까?
- 아프리카의 국경
- 소셜의 관계
- 나치 신비주의 : SS와 밀교 사이
- 녹색의 금
- 우주 식민지 건설
- 주체의 문제
- 지구
- 대학살자의 평범한 삶
- 약한 연결 고리의 힘
- 국경의 귀환
- 수면
- 에두아르 샤통의 아주 작은 생명체들
- 사피엔스

CNRS 출판사

www.cnrseditions.fr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니콜라 융커

칸트에 의해 정립된 철학적 기능에서 출발해, 심리학 및 생물학과 관련하며 재정립된 사회학의 기능.

APRÈS LA PHILOSOPHIE : HISTOIRE ET ÉPISTÉMOLOGIE DE LA SOCIOLOGIE EUROPÉEN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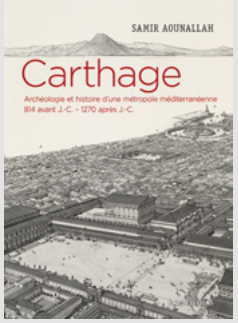
철학 이후

유럽 사회학의 역사와 인식론

사회학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그 인식론적 위치를 밝히고자 하는 방대한 연구를 담고 있는 책. 이 책은 통계, 민족지학, 장기 분석 등 사회학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넘어 통일된 사회학적 패러다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782271131935 | 2020 | 568쪽 | 15X23 CM | 27.00 €

인문사회·에세이



니콜라 융커

로마의 라이벌, 위대한 고대 도시 카르타고.

CARTHAGE : HISTOIRE ET ARCHÉOLOGIE D'UNE MÉTROPOLE MÉDITERRANÉENNE 814 AVANT J.-C. – 1270 APRÈS J.-C.

카르타고

지중해 대도시의 역사와 고고학 (BC.814~AD.1270)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 로마인에게 파괴되었지만, 반쯤 무너진 집들이 한 세기 만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상업이 번성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 814년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창립되어 1270년 생 루이 원정 후 하프시드 왕조의 통치자들에 의해 파괴된 이 도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부유하였으며, 아프리카의 수도이자 로마의 라이벌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와 같은 도시와 동등한 도시였다. 오늘날 확장된 튀니지의 땅에 묻힌 유적은 여전히 고대 대도시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반달왕국과 비잔틴제국은 물론 엘리사 여왕의 카르타고 창립 신화를 포함한, 세계 유산의 보석과도 같은 이 도시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총서.

9782271134714 | 2020 | 240쪽 | 17X23 CM | 29.00 €

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니나 발부스케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고자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책.

CATHOLIQUE ET ANTISÉMITE

가톨릭과 반유대주의

2차 세계 대전 이전 통합적 가톨릭주의, 성직자 파시즘 및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극우주의자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프랑스 무장 세력부터 루마니아 민족주의자들 및 뉴욕, 런던, 코펜하겐, 로마, 베를린으로 추방된 러시아 반 공산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의 반유대주의는 기독교적 반유대주의의 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반자유주의, 반시온주의, 반공산주의 십자군, 인종주의 등을 결합하며 전방위로 힘을 발휘했다.

9782271116956 | 2020 | 326쪽 | 15X23 CM | 25.00 €

과학·기술·의학

0
0

개미를 관찰하러 코트디부아르의 사바나로 간 한 젊은 생물학자의 이야기.

COMBATTRE, SAUVER, SOIGNER : UNE HISTOIRE DE FOUR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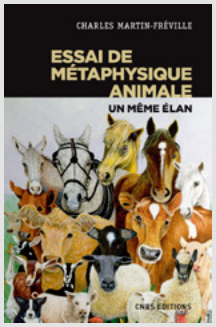
싸우고, 구하고, 치유하기
개미 이야기

에릭 프랑크는 엎드린 채 개미를 관찰하면서 몇 시간이고 보내곤 했다. 2003년 이후 언제나 내전 중인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코모에 국립 공원에서의 일이다. 때로는 전사가 되고, 때로는 의사가 되는 놀라운 개미의 조직성은 그 용감함과 치유력만큼이나 그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동료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개미들의 능력이었다. 만일 이 비밀스러운 개미의 비법으로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9782271123132 | 2020 | 200쪽 | 14X22 CM | 17.00 €

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샤를 마르탱 프레빌

인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그 복잡한 관계를 재고한다.

ESSAI DE MÉTAPHYSIQUE ANIMALE : UN MÊME ÉLAN

동물 형이상학 에세이

동물의 편에서

인간 혹은 동물 중 어느 한 쪽의 물리적 공동체(신체 상태)에 속하는 것은 명확한 언어와 성찰적 인식이라는 인간적 특성에 관한 형이상학으로서의 동물성에 기반한, 일종의 배제에 불과하다. <동물 형이상학 에세이>는 인간의 윤리학과 동물의 문화적 표상에 대항하며 동물의 고통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류중심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동물의 편에 서서 동물성이 무엇인가를 재고하도록 촉구한다.

9782271119858 | 2020 | 330쪽 | 15X23 CM | 23.00 €

인문사회·에세이

산자이 수브라만얌

연결된 역사'의 발기인인 산자이 수브라만얌은 국가주의적인 독선과 자기만족에 기반한 역사 연구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FAUT-IL UNIVERSALISER L'HISTOIRE ? : ENTRE DÉRIVES NATIONALISTES ET IDENTITAIRES

역사를 보편화해야합니까?

민족과 정체성의 표류 속에서

모두의 감성을 존중하는 정직한 '보편적 역사'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은 증명되었다. 산자이 수브라만얌은 역사의 '보편화'란 오히려 의도적인 배제의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보편적 역사'보다는 '연결된 역사'를 추구해야 한다고, 자기 정체성의 주장이나 소속된 국가 및 문화에 관한 자기만족의 정신이 아닌, 다른 문화와 다른 경험에 대한 교류와 개방 정신,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에 대한 호기심에 기반하는 역사학 연구를 촉구한다.

9782271125101 | 2020 | 144쪽 | 14X20,5 CM | 15.00 €

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미셸 푸셰

신민지가 남긴 상처가 아닌, 그대로의 국경을 바라보자.

FRONTIÈRES D'AFRIQUE :
POUR EN FINIR AVEC UN MYTHE

아프리카의 국경

신화를 끝내기 위하여

국경 불가침의 원칙은 1964년 독립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 이후로 아프리카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국경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리카 국경이 식민지가 남긴 흉터라는 신화를 끝낼 때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엄연한 아프리카의 국경이다. 물론 때로는 부정확하고, 불안함을 만들어내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제 그 국경은 상업적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국경이며 모든 자료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국경이다.

9782271133731 | 2020 | 80쪽 | 12X17 CM | 6.00 €

인문사회·에세이

베르트랑 바디

더 이상은 세상을 지정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새로운 국제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INTER-SOCIALITÉS :
LE MONDE N'EST PLUS GÉO-POLITIQUE

소셜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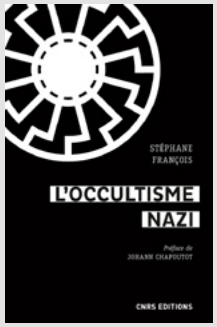
새로운 국제 관계

새로운 국제 갈등은 빈곤, 오염, 식량 불안정, 지역 사회 경쟁, 파괴적인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인 고통에 의해 촉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긴장의 원인이 대중의 움직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서 오피니언 기업가,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서비스에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는 해커 등이 자기 입맛대로 국제 관계를 주무르고 있다. 이제 국제관계는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외교와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9782271134806 | 2020 | 232쪽 | 14X22 CM | 20.00 €

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스테판 프랑수아

툴레 협회의 영향력은 환상일 뿐이다.

L'OCCULTISME NAZI : ENTRE LA SS ET L'ÉSOTÉRISME

나치 신비주의 : SS와 밀교 사이

<마술사의 아침>은 '툴레 협회'가 나치즘의 숨겨진 중심이라는 생각을 낳았다. 그러나 툴레 협회의 영향력은 환상이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밀교와 나치즘과 SS친위대를 연관시키며 일종의 급진적인 폭발적인 반문화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의도적인 행위와 그 기원을 되짚어본다. 또한 이탈리아의 밀교주의자 율리우스 에볼라, 잘 알려지지 않은 칠레의 네오나치 자크 마리 드 마티외, 또는 작가 장 폴 부르 등 이러한 신화적인 아이디어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작가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9782271131355 | 2020 | 232쪽 | 15X23 CM | 24.00 €

과학·기술·의학

아녜스 기요
장 아르카디 메이에르

식물은 뇌도 없고 근육도 없으며,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L'OR VERT : QUAND LES PLANTES INSPIRENT L'ENVIRONNEMENT

녹색의 금

식물이 환경에 영감을 줄 때

이 책은 산업, 의학, 건축, 디자인, 로봇 공학 및 컴퓨터 과학과 같은 분야의 혁신을 다룬다. 접착제는 어떻게 만드는가. 침대에 생긴 빈대를 퇴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저장하는 법은? 어떻게 태양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는가.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백신을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근육'도 '두뇌'도 없는 로봇을 만드는 법은?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는 '식물성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9782271126191 | 2020 | 224쪽 | 16X21 CM | 23.00 €

CNRS 출판사

과학·기술·의학

실뱅 샤티
릴리 데 벨롱

우주는 오랫동안 우리를 매혹해왔다. 언젠가는 달에 가리라는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화성에 가는 건?

LA COLONISATION DE L'ESPACE

우주 식민지 건설

금성에서 출발해서 달에도 들렀다가, 혜성까지! 이 책은 우리를 위험하지만 흥분되는 우주여행 속으로 초대한다. 저자 실뱅 샤티는 우주 탐험의 주요 단계, 외계 생명체에 관한 다양한 가설들, 우주 행성에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등 인간이 우주에 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룬다.

9782271126276 | 2020 | 178쪽 | 17X21 CM | 0.00 €

인문사회·에세이

릴리 데 벨롱

데카르트와 비트겐슈타인 간의 대결 게임을 통해 주관적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

LA QUESTION DU SUJET : DESCARTES ET WITTGENSTEIN

주체의 문제
데카르트와 비트겐슈타인

전통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철학자로 여겨지는 데카르트와 비트겐슈타인, 두 철학자에게 주관성의 특정 문법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무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도 아니하다'.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실험을 둘러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통해 통증을 느낄 가능성) 비트겐슈타인이 제안한 사고 실험이, '나, 형이상학적인 나, 신체적 대상이 없는 사유의 주체로서의 나'를 구분하는 데카르트적인 분석을 만난다.

9782271119834 | 2020 | 208쪽 | 15X23 CM | 25.00 €

CNRS 출판사

과학·기술·의학

알렉상드르 슈브넬
도나티앙 마리

지구의 역사와 구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LA TERRE

지구

4명의 지질학자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이미지를 통해 지질학적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지각의 단층과 판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부터 표면의 여러 층 아래에 묻혀 있는 암석을 분출하는 화산, 대륙의 표류 현상에 이르기까지, 지질학적 현상들과 지구의 구성에 관해 비밀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실려 있는 책.

9782271124326 | 2019 | 180쪽 | 17X21 CM | 18.00 €

인문사회·에세이

리샤르 레스만

한 대량학살자의 평범한 일상은 다른 사람을 처형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일이었다.

LA VIE ORDINAIRE DES GÉNOCIDAIRES

대학살자의 평범한 삶

이념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일하러 가는 것처럼 쉽게 타인을 죽인다. 리샤르 레스만은 대량 학살자들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으로 들어가서 매일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어떠한지를 면밀히 조사했다. 대량 학살자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죽이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처형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다.

RIGHTS SOLD
영어 저작권 판매 완료
(Fordham University Press)

9782271095077 | 2020 | 256쪽 | 15X20,5 CM | 19.00 €

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알렉상드르 제펜
상드라 로지에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약한 연결 고리'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LE POUVOIR DES LIENS FAIBLES

약한 연결 고리의 힘

약한 연결 고리'라는 개념은 윤리적, 정치적 성찰 속에서 흔히 무시되곤 한다. 그러나 약한 연결 고리의 형태야말로 현대 사회의 관계의 가장 중심적인 관계의 형태이며 타인에 관한 관심의 형태이다. 소셜네크워크 속에서, 문화적 영역에서, 도시 공간이나 자연환경과 현대인이 맺는 관계에서, 혹은 민주적인 공동체 속에서도 약한 연결 고리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9782271126221 | 0 | 384쪽 | 15X23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

미셸 푸셰

국경의 귀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LE RETOUR DES FRONTIÈRES

국경의 귀환

국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국경이 다시 단단해진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사실 국경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세계 여행자로서의 현대인들의 머릿속 지도에서 슬그머니 지워졌을 뿐. 그러나 국경은 단순히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제도이고, 때로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해도 국경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국경 없는 세계는 이슬람 테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야만적인 세상에 지나지 않는다.

9782271133489 | 2020 | 64쪽 | 12X17 CM | 6.00 €

CNRS 출판사

과학·기술·의학

뮈리엘 플로랭
쥘리 레가레

수면과 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 전반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

LE SOMMEIL

수면

수면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발생하며 우리의 존재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수면을 생략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면 시간은 우리 내부의 시계를 통해 정해지며 지구의 자전에 맞추어 조정된다. 우리가 수면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에 관한 책.

9782271130662 | 2020 | 176쪽 | 17X21 CM | 18.00 €

인문사회·에세이

카트린 제쥐
뱅상 로데

에두아르 샤통의 원생생물 그림을 담은 책.

LES VIES MINUSCULES D'EDOUARD CHATTON

에두아르 샤통의 아주 작은 생명체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원생생물들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 세기 전, 뛰어난 연구원이었던 에두아르 샤통은 이렇게 작은 원생생물을 연구했다. 그는 원생생물의 조그마한 비밀을 밝혀내고 현대 생물학의 기틀을 마련한 시각적인 개념을 탄생시키며 원생생물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이 책에는 독창적이고 다채로우며 놀랍도록 아름다운 동시에 과학적 정확성을 잃지 않은, 극도로 작은 원생생물의 세계를 그려낸 에두아르 샤통의 그림들이 실려있다.

9782271134035 | 2020 | 288쪽 | 21X24 CM | 29.00 €

CNRS 출판사

과학·기술·의학

프랑수아 봉
오로르 칼리아스

다른 종들이 모두 서서히 멸종해온 오늘날까지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SAPIENS

사피엔스

타인의 정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여 그것을 자신의 존재로 느껴볼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인류의 혈통 내에서 사피엔스의 특이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직접 선사 시대로 뛰어들었다. 일종의 정신분석적 기법을 통해 선사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의 인식 속으로 독자를 초대하는 동시에 유쾌한 유머를 잃지 않은 책.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 저작권 판매 완료

9782271124197 | 2019 | 168쪽 | 17X21 CM | 18.00 €